2024-03-18 (2024-12호)

03월 18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변동성

서울, 3월1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 따라 단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45원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강력한 시장 기대가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에 힘을 실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거침없이 진격했고 국내 증시 역시 이 같은 영향권에 들면서 한동안 원화는 강세 쪽으로 조금은 치우친 흐름을 보였다.

한 달 이상을 1,330원을 중심으로 좁게 등락하던 달러/원은 지난주 1,310원 아래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는 끈질긴 고물가 현상이 미국 물가지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시장은 기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이번 주 있을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이러한 시장 움직임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적지 않다.

3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 변화는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금리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금리점도표에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다. 지난 12월 연준 위원들은 올해 정책금리가 75bp, 내년에는 100bp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고용, 성장,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견조한 결과를 보인 만큼 6월 첫 금리 인하와 올해 3번 인하를 점친 시장의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달러는 다시 반등탄력을 키우며 단단한 달러 흐름을 되찾았다.

최근 나온 주요 경제지표 결과로만 본다면 다소 매파적일 FOMC 결과를 경계할 수도 있겠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머지 않아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고 시사한 점 역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고금리 정점을 지나 통화정책 사이클이 인하 쪽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시장의 인하 속도와 시기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연준 이벤트를 전후해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 최근 증시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의 랠리가 굵직하게 진행되온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연준 이벤트에 앞서 발표되는 일본은행(BOJ) 정책회의 결과도 금주 핵심 변수다.

3월 회의에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수익률 곡선 관리(YCC)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와 함께 향후 통화정책 운영 경로로 쏠려있다.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종료 후에도 BOJ가 완화적인 통화 조건을 유지할 것이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현재의 초완화 정책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간 내 BOJ의 국채 매입을 지속하겠지만 이에 따른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다소 균형적인 스탠스 시사할지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에 따른 달러/엔의 방향성과 변동성에 국제 외환시장은 출렁일 테고, 이에 원화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편, 주 초 중국 경제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국 2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도 발표된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이 잘 형성되지 않고, 금리인하 사이클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위안 약세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황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위안과 원화의 추세는 유사한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역외 달러/위안이 재차 7.2위안대로 복귀한 만큼 달러/원의 하방경직적인 흐름이 한층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다.

FOMC회의 결과에 글로벌 달러를 비롯해 위험자산·통화들의 단기 경로가 정해질 테고 이에 원화는 역시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21일 기준 수출입 및 무역수지 결과를 통해 수출 경기와 외환수급에 대한 중간 점검이 뒤따를 예정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BOJ 금리 인상 여부 주목
일본은행(BOJ)이 18~19일 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결할지 여부를 드디어 결정한다.

올해 연간 임금 협상에서 일본 기업들의 막대한 임금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BOJ는 대규모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비롯한 BOJ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은 3월이 아니더라도 수년간의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장은 6월까지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연준 정책회의
20일 연준 회의는 금리 인하 시기, 미국 경제의 회복력,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들의 견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견실한 고용 및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정책결정권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연방기금금리선물은 올해 8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1월 150bp 이상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500지수의 랠리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투자자들은 주춤할 수 있다.

또한 18~21일 열리는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도 관심거리다. AI 열풍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80% 가까이 상승했다.

⊙ **영란은행 정책회의**
영란은행은 21일 금리 발표에서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더 높은 임금 성장률이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오는 8월 현재 5.25%인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늦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영란은행의 기준금리를 "검토 중"이라는 표현의 변화 여부와 정책이사들의 표가 어떻게 갈릴지를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20일 나오는 인플레이션 수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된다.

⊙ **유로존 및 영국 PMI**
미국과 달리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에너지 충격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유럽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커서 반등 속도도 느리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일내 발표될 세계 각국의 3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견해를 확인시켜줄 수도 있다.

2월 유로존 종합 PMI는 경기 확장과 수축을 구분하는 50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영국의 제조업 PMI는 2022년 8월 이후 성장 기준선인 50 아래에 머물렀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다.

⊙ **멕시코 등 신흥국 금리 결정**
멕시코 중앙은행은 신흥국 금리 인하 열풍의 선두에 서 있는 라틴 아메리카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드물게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21일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선거 해 예상보다 높은 국내 지출로 인한 견실한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멕시코 중앙은행은 사상 최고치인 11.25%의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터키에서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 고착화된 물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희망이 깨졌다. 시장에는 중앙은행이 최대 500bp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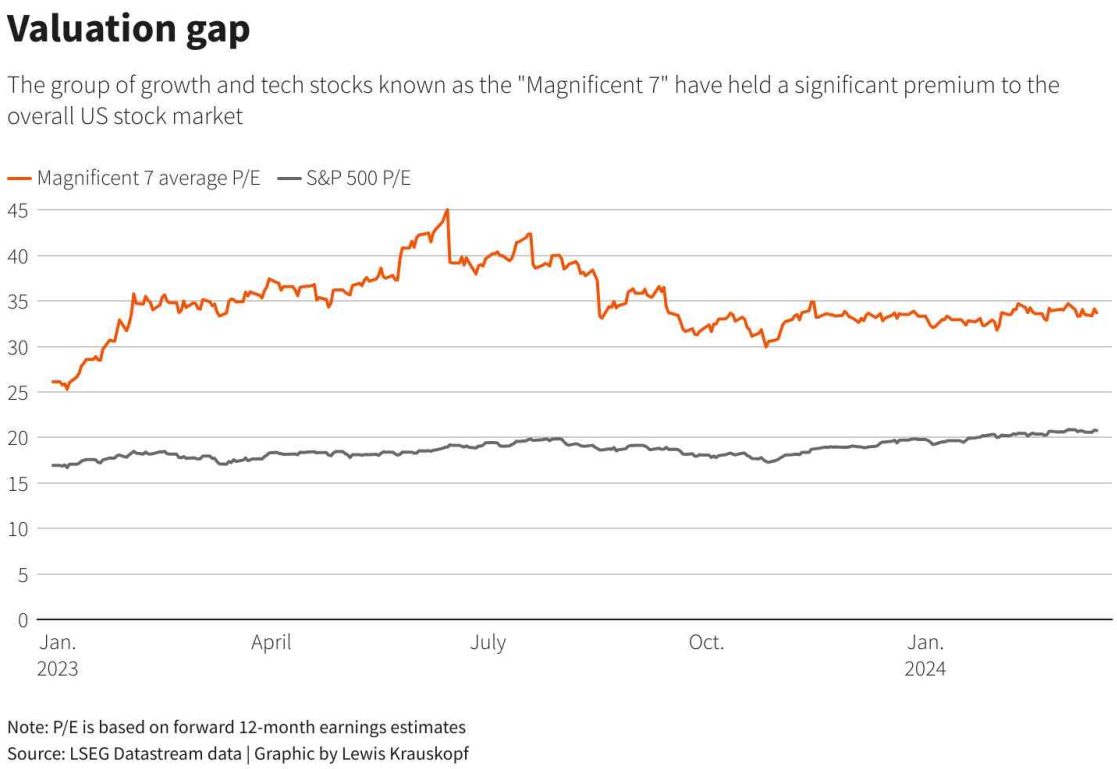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매그니피센터 7' 밸류에이션에 관심 쏠릴 듯

뉴욕, 3월18일 (로이터) -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 대형 기술 및 성장주들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이들의 비싼 밸류에이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 주가수익비율은 33배로 2022년 말 26배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올해 7% 이상 상승한 S&P500지수 주가수익비율이 약 21배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지난해 투자자들은 이들 메가캡의 탄탄한 재무제표와 업계 내 지배적인 위치를 감안해 기꺼이 돈을지불했다. 올해 들어 투자자들은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전망이 어두워진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하락한 반면, AI 열풍 속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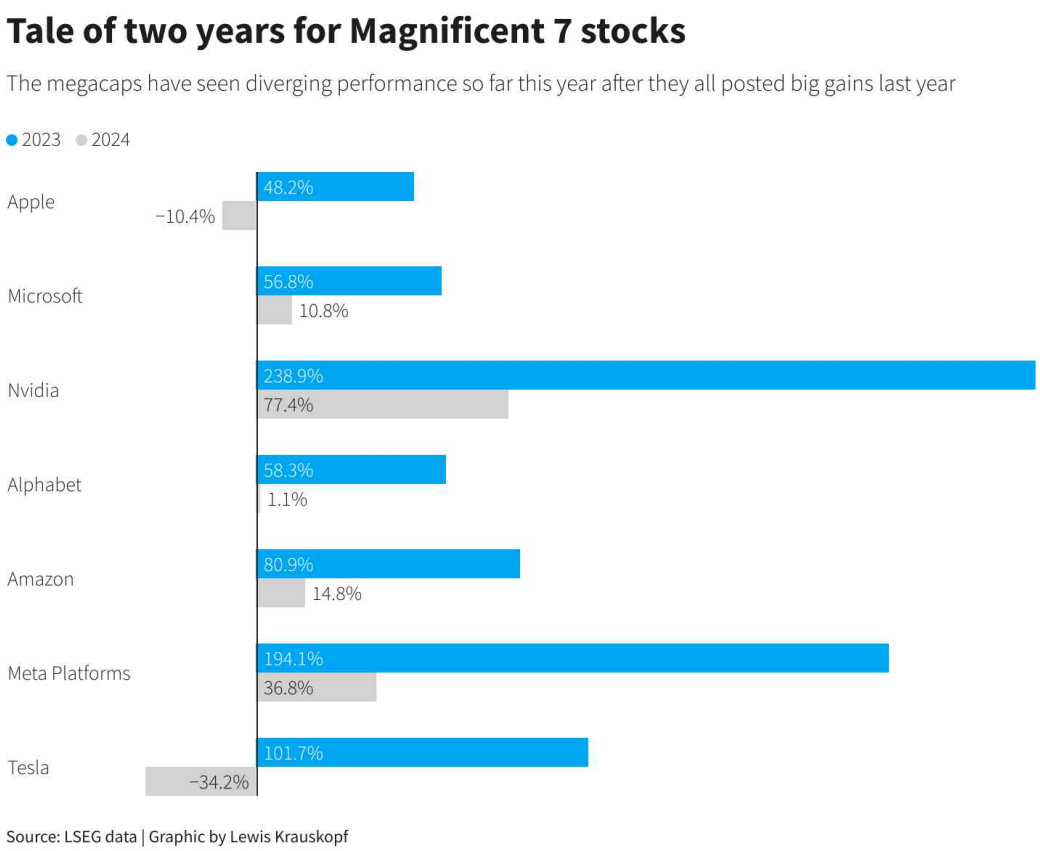
전기 자동차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35% 가까이 하락하며 S&P500 중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연초에는 주가수익비율이 약 65배였는데 현재 약 50배까지 하락했다.

또 다른 매그니피센트 7 멤버인 애플은 중국 사업의 압박으로 인해 주가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 하락해 시장 가치 기준 미국 최대 기업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다. 애플의 주가수익비율은 29배에서 25배로 떨어졌다.

한편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약 80% 급등했고 주가수익비율은 약 35배다. 메타 주가도 40% 가까이 올라 주가수익비율은 24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매그니피센트 7 중 애플 주가는 약 50%, 엔비디아 주가는 230% 이상 상승했다. S&P500에서

이들 주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성과가 지난해 지수 상승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S&P500 지수는 2023년에 24% 상승했다.



시장은 19~20일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 호조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낮아졌고,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계속될 경우 증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AI 컴퓨팅 분야의 막강한 우위를 장기적인 지배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18일에 시작될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지켜볼 것이다.

AI 낙관론이 매그니피센트 7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가치 평가 모델에서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7개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비중은 낮게 잡고 있는 버팔로 대형주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켄 라우단은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 독특한 주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 제프리 부흐빈더는 탄탄한 수익이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했지만, 그룹의 성장 궤적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7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5년 평균 주가수익비율을 밑돌고 있다.

노던 트러스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케이티 닉슨은 "이들은 엄청난 양의 현금과 매우 탄탄한 대차대조표, 가시적인 수익 성장원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20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그룹 중 나머지는 그 이상이지만, 매그니피센트 7 구성 기업 주가가 더 많이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에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씨티그룹 분석가들은 말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는 "매그니피센트 7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최근의 거의 행복감에 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18일(월)
⊙ 기획재정부: 부총리 물가 현장방문 (10:30)

3월19일(화)
⊙ 한국은행: 2024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금융감독원: 원장 지방 지주·은행 간담회 (14:00)

3월20일(수)
⊙ 특이 일정 없음

3월21일(목)
⊙ 관세청: 3월1~20일 수출입 현황
⊙ 금융감독원: 원장 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15:00)
⊙ 기획재정부: '24.3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3월22일(금)
⊙ 한국은행: 2024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1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11-18일		중국	FDI (YTD)	2월		-11.70%
3월18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1월	-1.0%	2.7%
3월18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 YY	2월	3.2%	3.0%
3월18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2월	5.0%	6.8%
3월18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2월	5.2%	7.4%
3월18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YY	2월	2.6%	2.6%
3월18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3월		48
3월19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SA	1월		-7.5%
3월19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2월	1.500M	1.489M
3월19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2월	1.435M	1.331M
3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3월		3.45%
3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3월		3.95%
3월2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15일 주간		201.5
3월21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3월	-14.7	-15.5
3월21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3월		-1
3월21일	08:50	일본	수출 YY	2월	5.3%	11.9%
3월21일	08:50	일본	수입 YY	2월	2.2%	-9.6%
3월2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3월		47.2
3월21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1월		42.66B
3월21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3월	47.0	46.5
3월21일	21:30	미국	경상수지	4분기	-209.5B	-200.3B
3월2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11일 주간	215k	209k
3월21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기업활동지수	3월	-2.5	5.2
3월2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3월	51.7	52.2
3월21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2월	3.95M	4.00M
3월22일	08:30	일본	근원 CPI YY	2월	2.8%	2.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18일 (월)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19일까지)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시작 (19일까지)

3월19일 (화)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및 기자회견 (오후 1시30분)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시작 (20일까지)

3월20일 (수)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컨퍼런스 연설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21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21일 오전 3시30분)

3월21일 (목)
⊙ 영란은행 금리 발표 및 회의록 공개 (오후 8시)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제럴드 R. 포드 공공정책대학원 토론 참석 (22일 오전 1시)

3월22일 (금)
⊙ 유로존 정상회의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준이 듣는다" 행사 개회사 (오후 10시)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이 듣는다" 행사 패널토론 주재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준이 듣는다" 행사 패널토론 주재 (오후 11시)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초국가적 법 컨퍼런스 화상 토론 참석 (23일 오전 1시)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가계 재정 관련 토론 참석 (23일 오전 5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 美 증시, 거품은 아닐지 몰라도 하락 임박했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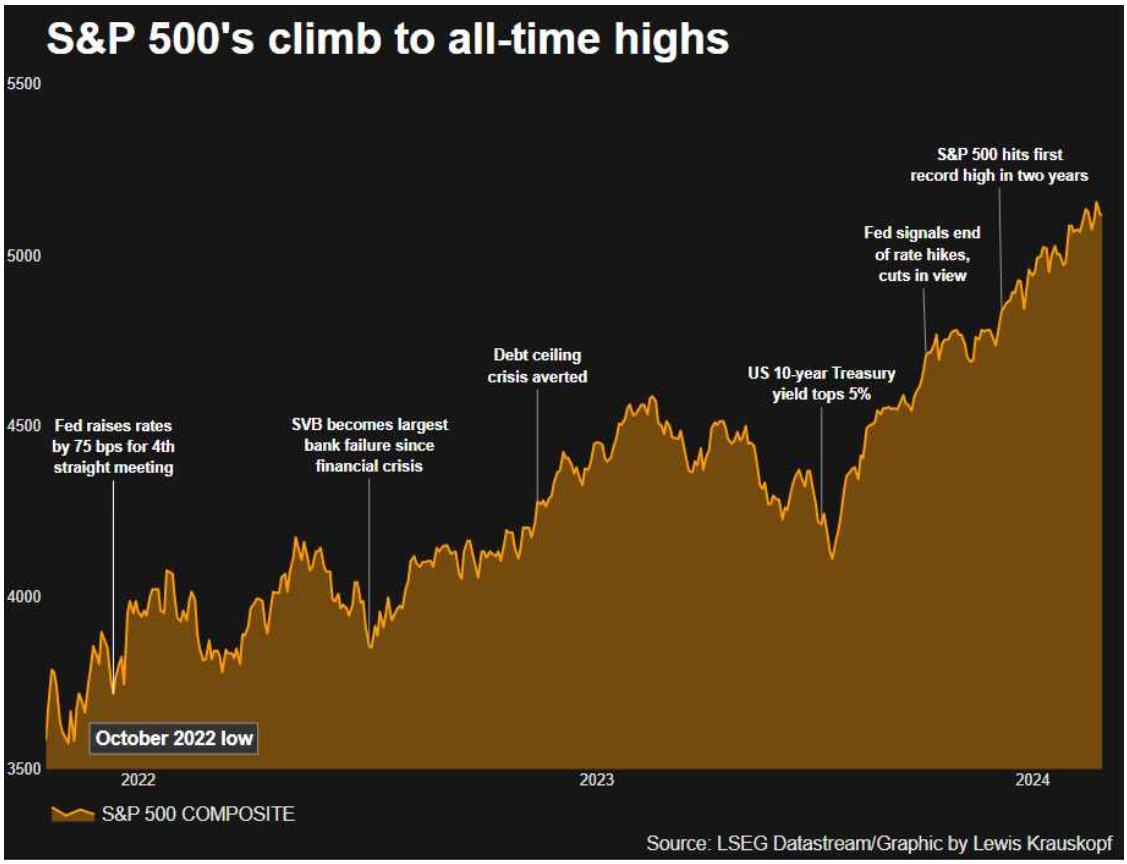
뉴욕, 3월13일 (로이터) -
미국 증시가 거품인지 아니면 강한 상승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달려온 랠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S&P500지수는 지난 5개월 동안 25% 이상 상승했는데, BofA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이는 1930년대 이후 단 10번 밖에 없었던 드문 현상이다.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놀라운 상승에 힘입어 S&P500지수는 올해 이미 사상 최고치를 16번 경신했으며, CFRA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1945년 이후 1분기 중 최다 기록이다.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과거 거품에 수반되었던 투기보다는 견고한 펀더멘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의 호조,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 인공지능의 사업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등이 그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거의 멈춤 없이 상승해온 증시가 하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S&P500지수가 마지막으로 5% 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지만, BofA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매도세는 연평균 3차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수는 8.5% 상승했다.

마이클 아론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어드바이저 수석 투자 전략가는 "많은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리스크가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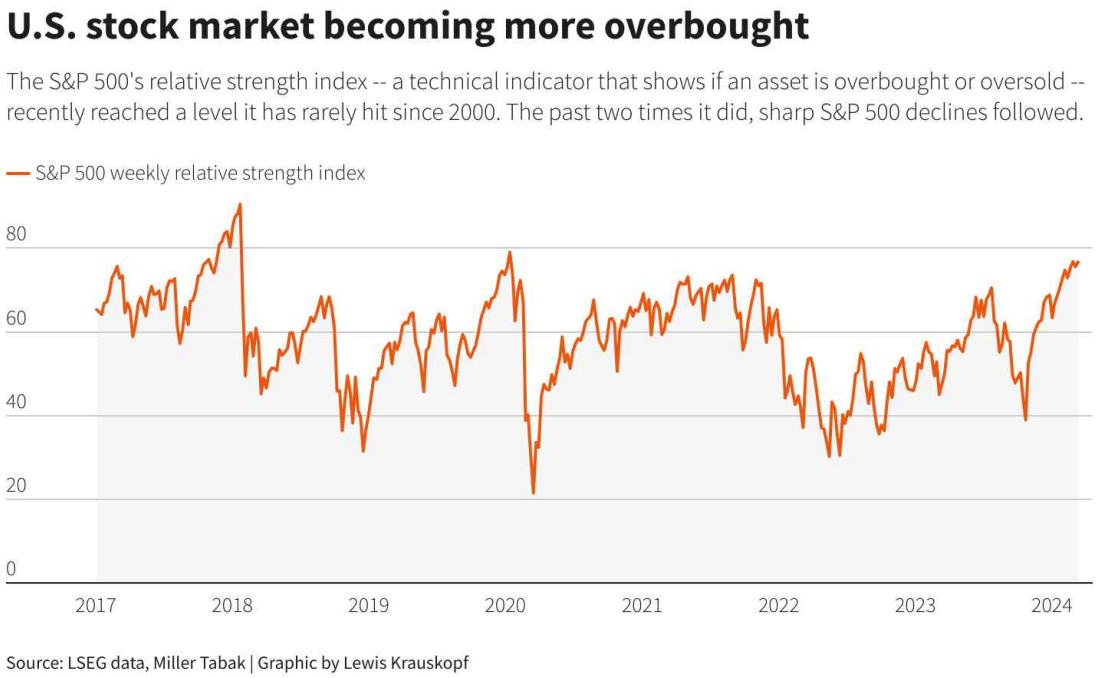
매도세를 초래할 원인이 무엇인지 당장은 뚜렷하지 않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폭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많은 이들은 대출 비용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소비자 물가도 경제 호조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지역은행의 불안부터 중국의 경제 부진에 이르기까지 다른 우려요인들을 대체로 무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밀러타박의 데이터에 따르면 S&P500지수의 주간 상대강도지수(RSI)는 2000년 이후 거의 넘어선 적이 없는 76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수가 이 수준을 상회했던 최근 두 번의 사례에서는 상당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2018년 1월 S&P500지수가 10% 하락했을 때가 그랬고, 2020년 1월에는 지수가 이 수준을 넘어선 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S&P500지수가 30% 급락했었다.

매트 말리 밀러타박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요 장기적 고점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커지는 것도 우려를 불러온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의 최근 주간 설문조사에서 6개월 주식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투자자의 비율은 51.7%로 증가해, 최근 3년 사이 낙관적 전망이 50%를 넘은 네 번째 사례를 기록했다.

낙관론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종 반대의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

케빈 고든 찰스슈왑 수석 투자 전략가는 "현재 투심 상황이 시장을 하락 반전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의 상승세는 잠시 멈출 준비가 됐을 수도 있다. S&P500지수는 1월1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전 약세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했고, 이후 약 7% 상승했다.

이는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후 계속 상승했던 과거 랠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샘 스토발 CFRA 수석 투자 전략가는 같은 상황에서 최소 5%의 하락이 뒤따랐던 적이 12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거품일까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장의 낙관론과 엔비디아 등 AI 중심 기업 주가의 포물선 움직임을 2021년 밈 주식 랠리, 1999년 닷컴 폭등 등 자산 가격이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폭락했던 과거 시기와 비교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3년 세 배가 상승한 뒤 올해 들어서도 80%가 넘게 올랐다.

JP모간 전략가들은 엔비디아가 S&P500지수의 성적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AI 열풍이 정점에 달할 때 이러한 관계가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거품과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키이스 러너 트루이스트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지난 3년간 S&P500 기술업종이 전체 S&P500지수 대비 약 30% 나은 성적을 냈다고 지적하고, 이는 30년 평균과 거의 비슷하며 2000년 3월 2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기록했던 정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업공개가 상대적으로 침체된 신규 발행 시장에는 들뜬 분위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콜라스 데이터트렉리서치 공동 설립자는 2022년 1월 S&P500지수가 정점을 찍기 전인 2021년 311개 기업보다 훨씬 적은 54개 기업 만이 2023년 IPO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BofA글로벌리서치 주식 및 퀀트 전략가는 "2023년 중반 이후 주식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이 되었지만, 이전 시장 정점 당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기에 이 강세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ofA는 최근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100포인트에서 5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총리, 주요 비즈니스 서밋에서 글로벌 CEO들과 회동 생략**

베이징/홍콩, 3월13일 (로이터) -
리창 중국 총리가 3월 말에 열리는 중국개발포럼(CDF)에서 방중하는 외국 CEO들과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세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중국 정부가 매년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주최하는 이 고위급 포럼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CEO들과 중국 정책결정권자들이 만나 외국인 투자를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골 참석자로는 애플의 CEO 팀 쿡과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있다.

중국 총리와 방문 CEO들 간의 회동은 CDF의 중요한 이벤트였다. 리 총리는 오는 24~25일 포럼에는 참석할 계획이지만, CEO들과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규제 당국, 대형 은행들에 완커 지원 강화 요청 - 소식통들**

홍콩/상하이/베이징, 3월11일 (로이터) -
중국 규제 당국은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 기관들을 만났으며, 대형 은행들에게는 완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민간 채권 보유자들에게는 만기 연장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문제를 직접 알고 있는 소식통들은 금융 기관들이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도록 요청받았으며, 중국 내각인 국무원이 완커 지원과 관련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커와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완커가 일부 보험사와 채무 만기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투자자들은 유동성 우려 속에 지난 몇 주 동안 완커의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왔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프리뷰) - 마이너스 금리 실험 종료 앞둔 BOJ**

도쿄, 3월15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이 8년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임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다음 주 18~19일 회의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에다 가즈오가 작년 4월 BOJ 총재로 취임한 이후 출구전략을 위한 내부 준비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말까지 대부분 준비는 완료되었다고 BOJ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말한다.

우에다 총재를 비롯한 BOJ 관리들은 최근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올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연간 임금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 토요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대대적 임금 인상으로 BOJ가 대규모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사회가 조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BOJ는 오버나이트 콜금리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기관들이 BOJ에 보관하는 초과 지급준비금에 0.1%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0~0.1% 범위로 금리를 유도할 것이다.

BOJ는 15일 오후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에서 발표할 대기업들의 임금 협상 결과에 대한 예비 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주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선택할지 아니면 4월까지 보류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이이치 생명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요시키 신케는 "대기업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제안하면 중소기업도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발표될 렌고의 서베이는 BOJ가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해야 하는 큰 이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 BOJ는 채권 수익률 통제(YCC)를 폐기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위험 자산 매입도 중단할 것이며, 2013년부터 시행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의 급진적 통화 실험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마이너스 금리 종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BOJ가 이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어떤 단서를 제공할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종료 후에도 BOJ가 완화적인 통화 조건을 유지할 것이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현재의 초완화 정책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 후 BOJ가 제시할 수 있는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지침은 이러한 발언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BOJ,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쪽으로 기울어 - 소식통**

도쿄, 3월11일 (로이터) -
점점 더 많은 일본은행(BOJ) 정책결정권자들이 올해 협상에서 임금이 대폭 인상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이달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되면 BOJ가 채권 수익률 통제와 리스크 자산 매입으로 구성된 대규모 부양 프로그램을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에서 3월18~19일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적어도 4월25~26일 회의까지 보류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임박했을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많은 BOJ 정책결정권자들은 대규모 부양책의 단계적 폐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13일 대기업과 노조 간의 연간 임금 협상 결과와 15일 발표될 일본 최대 노조 렌고의 첫 서베이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 제안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임금 인상은 3월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봄 임금 협상 결과가 강력하다면 BOJ가 반드시 4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많은 정책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달 "단칸" 서베이와 전국 임금 전망에 대한 BOJ 지점장 보고서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면 BOJ는 4월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BOJ, YCC 종료시 채권 매입 속도에 대한 지침 제공할 것 - 소식통**

도쿄, 3월13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종료할 때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한 수치적 지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말했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되면 수익률 곡선 제어(YCC)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채권 가격 움직임에 시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BOJ가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매입 속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BOJ는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채를 어느 정도 계속 매입하고, 어떤 형태의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BOJ는 채권 매입을 원치 않는 수익률 급등에 대한 백스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느슨한 양적 가이던스 설정이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BOJ는 채권 매입 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약 6조엔(407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소식통은 중앙은행이 YCC 폐지 이후에도 현재의 채권 매입 속도를 대략적으로 유지하고, 당분간 급격한 매입 규모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되면 BOJ는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새로운 정책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소식통들은 BOJ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0.1%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BOJ가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제로 부근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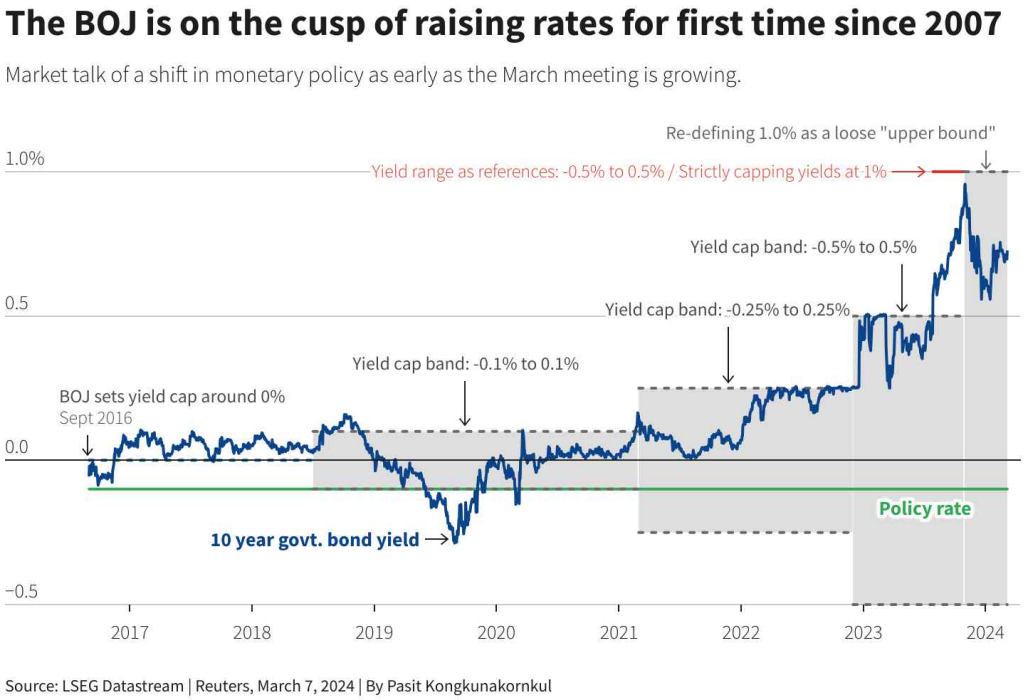
- **BOJ, ETF 매수 스킵... 정책 변화 임박 추측**

도쿄, 3월12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이 11일 일본 증시 급락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초완화 통화 정책의 전환이 임박했다는 추측을 불러왔다.

BOJ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대응을 초래하는 토픽스지수 2% 하락에도 BOJ가 ETF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등과 임금 및 물가 상승 신호라는 상황이BOJ가 이르면 다음 주 회의에서 초완화 정책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베팅을 불러오고 있다.

모리타 준 치바긴자산운용 리서치국 총괄 매니저는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물가가 BOJ의 목표 달성을 향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OJ가 ETF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시장 지원의 우선 순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BOJ의 변화는 수십 년에 걸친 정책 실험이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로이터는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인 BOJ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야지마 다카유키 소니파이낸셜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BOJ가 주식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다른 정책 세팅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임금과 물가 상승 같은 환경의 변화를 BOJ가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정책 전환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OJ의 다음 정책 회의는 3월18~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월 금통위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일부 의원 “완화 시점 적절히 결정해야”**

서울, 3월12일 (로이터) -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내수 부진을 근거로 적절한 시기에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2월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의 긴축기조 지속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A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이 3%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완화기대는 작년 4분기 이후 둔화된 주택가격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민간 부채의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위원은 "높은 가계대출은 국내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라며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서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C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위원은 "올해와 내년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당분간 금리를 현수준으로 동결해 물가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F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 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을종합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은 금리인하의 시점을 고민할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위원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화의 위험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평가한다"라며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승규 기자; 편집 문윤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